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혜숙과 해공이 세속과 함께 한 까닭은?

화광과 동진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일정한 법도가 있다. 그 법도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과 윤리이다. 여기서 '도는 고금의 으뜸[道冠古今]이며 덕은 천지의 짝이다[德配天地]'는 뜻이다. 윤리는 공동체라는 동아리에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원리이다. 때문에 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추방되게 마련이다. 생활공동체 혹은 수행공동체인 상가에 출가한 성직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평등과 화합의 공동체인 상가를 구성하는 출가자들에게는 엄격한 계(戒)와 율(律)이 정해져 있다. 계와 율은 구속일지 모르나 한편으로는 계와 율은 자신을 지키는 일이자 남을 지키는 일이다. 계와 율이 구속이 아니라 대자유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면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계와 율은 출가자의 존재이유이자 재가인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이유이기도 하다.

불교 전통에서 보면 출가자는 계와 율을 수지를 목숨의 수지로까지 여겼던 사례들이 적지 않다. 계는 오계로부터 팔계(팔관제), 십계, 이백 오십 계 또는 삼백 사십 팔계 혹은 오백계로 확장된다. 때문에 오계만 지켜도 절도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정한 수행력을 획득한 뒤에 계와 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살았던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허공에 자취를 남기지 않는 새들처럼 자유롭게 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체(戒體)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계상(戒相)과 계용(戒用)에 의해 보살행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불교 전통에서는 신라시대 서민불교의 문을 연 혜숙(惠宿)과 해공(惠空) 및 대안(大安)과 원효(元曉) 등과 같은 자유인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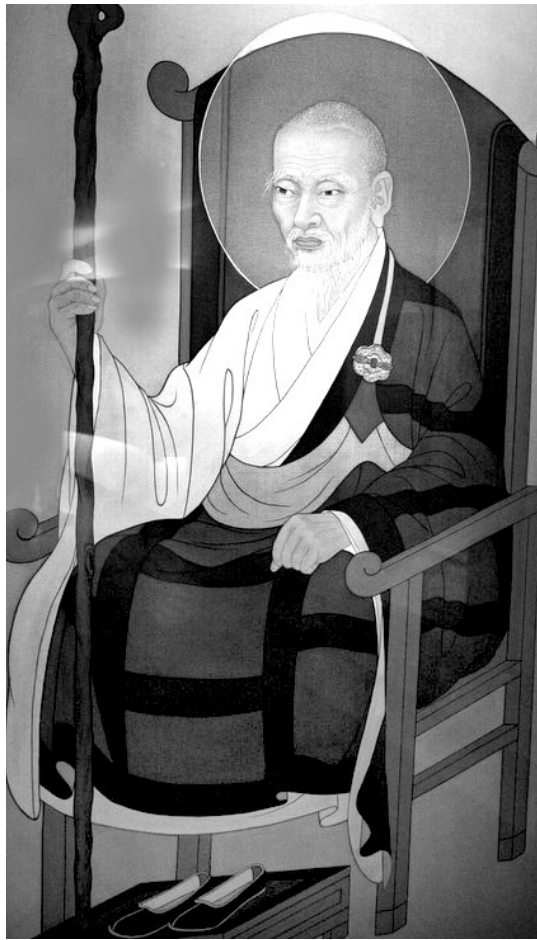
혜숙과 해공의 생애에 대해서는 『삼국유사』 「의해」편 '이혜동진' (二惠同進) 조목에 실려 있다. 일연은 이들 두 사람의 가풍을 『노자』 4장의 '화기광 동기진' (和其光, 同其塵)에서 따와 '동진'으로 조목 이름을 붙이고 있다.

계집을 얻은 이는 "그 빛을 조화시켜서 그 티끌세상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혜숙과 해공은 너무나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계체 위에서 세상을 따르는 계상과 계용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전생의 석가보살이 자신의 살점을 떼어 비둘기의 목숨을 대신하려 했던 것처럼 이들의 삶은 보살의 대비행으로 드러나고 있다.

혜숙 선사

혜숙은 화랑이었던 호세랑(好世郎)의 무리였으나 자취를 감추고 적선존에 이십 여년을 숨어 살았다. 때마침 국선(國仙)이 교외에 사냥을 하고 있었다. 하루는 혜숙이 길에 나와 말고삐를 잡고 청하였다. "소승도 따라 가기를 청합니다." 구참이 허락하였다. 혜숙이 옷을 벗어젖히고 종횡으로 내달리자 구참은 매우 기뻐하였다.

잠시 쉬는 동안 그들은 고기를 삶고 구워먹었다. 혜숙도 같이 먹으면서 조금도 싫어하는 기색이 없었다. 조금 있다가 앞으로 나아가 말하였다. "지금 더 좋은 고기가 있으니 더 드시겠습니까?" 구참이 좋다



혜숙 선사 영정(오어사 성보박물관 소장)

고 하였다. 혜숙이 탄 사람을 물리치게 하고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서 소반에 바쳐 올렸다. 옷에는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구참이 깜짝 놀라며 말하였다. "어찌하여 이러는가?" 혜숙이 말하였다. "처음에 공이 어진 사람이라 나를 용납해 주고 만물에 통달하였다 여겨서 따랐소. 그런데 이제 공을 보니 살육을 탐하고 남을 해쳐 자신의 몸 살리기에만 성실할 뿐이니 어찌 어진이나 군자가 할 일입니까? 공은 우리와 함께할 무리가 아닙니다." 혜숙은 옷을 털고 가버렸다. 구참은 크게 부끄러워 하였다. 혜숙이 먹던 것을 살피보니 소반에 담았던 고기가 조금도 즐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남의 악한 행위를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법력(法力)을 갖추어야 한다. 남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혜숙은 계와 율의 체화(體化)를 통해 우리나라 수행의 힘으로 보살행을 할 수 있었다.

계에도 흔들리지 않은 자유

'계에도 흔들리지 않은' 혜숙의 보살행은 사람들에게 의해 곧바로 신라 조정에 알려졌다. 이 일을 전해들은 진평왕은 사신을 보내 혜숙을 맞아오라 하였다. 사신이 오자 혜숙은 어느 여인과 함께 자리에 누워 있었다. 사신을 여인과 함께 누워있는 혜숙을 보고 더럽게 여겨 돌아갔다. 사신이 혜숙의 처소를 떠나 7, 8리쯤 되는 곳에서 혜숙을 만났다. 그는 혜숙에게 오디서 오느냐고 물었다. 혜숙이 말하였다. "성안에 보시하는 집에서 7일 재(齋)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यो." 사신이 그 말대로 진평왕에게 아뢰었다. 일군은 사람을 시켜 보시한 집을 조사하게 하였다. 조사를 해 보니 사실이였다. 그 뒤 오래지 않아 혜숙이 갑자기 입적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런(耳

峴)에 장사를 지냈다.

때마침 그 마을 사람이 이런 서쪽에서 오다가 혜숙을 만났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여기에 오래 살았으니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오." 두 사람은 서로 인사하고 헤어졌다. 마을 사람은 혜숙이 반리쯤 가더니 구름을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런 동쪽에 오다가 혜숙을 장사지내려 모인 사람들을 만나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말하였다. 그들이 무덤을 해쳐 보자 짙은 한 짝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처럼 그는 삶과 죽음[生死]에도 자유자재하였다. 경주 안강현 북쪽에는 그가 머물렀던 혜숙사가 있었고 그곳에 부도가 있었다고 한다. 일연은 그의 보살행을 기려 "들판에서 사냥하고 여인과 누웠다가/ 짙은 한 짝만 남겨 놓고 어느 공중으로 갔는가"라는 찬시를 남기고 있다. 이어 또 그를 해공과 함께 '세속의 불

신라 서민불교 문연 두 선사

혜숙, 왕 육식 보며 자기살 올려

계율 체화 힘으로 보살행

생사 경계에서도 자유자재

속에서도 타지 않은 보배로운 연꽃[花中蓮]이라고 기렸다. 욕망의 불꽃조차도 그의 계체(戒體)를 태울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자유 자재하였다는 말이다.

해공 선사

신라 서민불교의 기수인 혜숙과 짝을 이루는 해공은 천진공(天真公)의 집에서 고흥살이 하던 할미의 아들(養助)이었다. 일찍이 천진이 종기를 앓아서 거의 죽게 되자 문병하러 오는 이가 길을 메웠다. 그때 일곱 살이었던 우조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집에 무슨 일이 있기에 손님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머니가 대답하였다. "주인 어른의 병이 악화되어 잠차 죽게 되었는데 너는 어찌 그것을 모르느냐?" 우조가 말하였다.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히 여겨 천진에게 말하였다. 천진이 우조를 불러오라 하여 병상 앞에 앉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조금 후에 종기가 저절로 터졌다. 천진은 우연이라 여겨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사이 우조는 장성하여 천진을 위해 매를 기르는데 그의 마음에 썩 들었다.

일찍이 천진의 아우가 관직을 얻어 외지에 가면서 그에게 매 한 마리를 입지에 가지고 가겠다고 하여 주었던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공이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서 내일 새벽에 우조를 시켜 가져오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우조는 벌써 주인의 뜻을 알고 닭이 채 밝기도 전에 그 매를 가져와 천진에게 바쳤다. 천진이 크게 놀라 비로소 전에 종기를 낫게 했던 일도 신기한 일이었음을 깨닫고 말하였다. "내가 지성(至誠)하신 분이 우리 집에 의탁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릇된 말과 예 아닌 일로 욕을 많이 보였으니 그 죄를 어찌 씻겠습니까? 원컨대 이제부터 스승이 되어서 저를 인도해 주소서." 드디어 천진은 우조에게 절을 하였다. 우조는 자신의 영험이 이미 드러



해공 선사 영정(오어사 성보박물관 소장)

났기 때문에 결국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이름은 해공이라고 부르게 하였다.

세간을 떠난 이유

해공은 늘 한적한 절에 있으면서 매양 삼태기를 짊어지고 숲에 취하여 미친 듯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부귀화상'(負貴和尚)이라 하였고 그가 있는 절을 부귀사(夫貴寺, 부귀는 삼태기의 신라말라 하였다. 또 그가 부귀사 우물 속으로 들어간 몇 달씩 나오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우물의 이름을 해공이라 하였다. 우물 속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푸른 옷을 입은 신동이 먼저 솟아나왔다. 해서 절의 승려들은 그가 나올 때를 짐작하였다. 하지만 우물에서 나와도 옷이 젖지 않았다. 그는 만년에 항사사(恒沙寺, 현 呑魚寺)로 옮겨 머물렀다. 때문에 세간에서는 그를 '항사성인'(恒沙聖人)이라고도 불렀다. 그때 원효(元曉)는 여러 불경의 소(疏)를 짓다가 의심이 나면 해공에게 가서 물으며 가끔씩 농담을 하기도 하였다.

하루는 원효와 해공이 개천에서 고기와 새우 등을 잡아먹고는 돌 위에 똥을 누었다. 해공이 그것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자네는 똥을 누고 나는 고기를 누었다" 이 때문에 오어사라고 이름지었다. 일찍이 구참공이 산에 유람갔다가 해공이 산 속에서 죽어 썩은 시체에 벌레만 것을 보고 한참 슬퍼하다가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성 안에 들어가자 해공이 크게 치하여 저자에서 노래하면 춤추는 것을 보았다. 하루는 새끼줄을 가지고 영묘사(靈廟寺)에 들어가 금당과 좌우 경루(經樓)와 남문의 남부(廊廡)를 둘러 묶고 강사(講司)에게 이르기를 "이 새끼줄을 반드시 3일 뒤에 풀라"고 하였다. 강사가 이상히 여겨 그대

로 하였다. 과연 3일 만에 선덕여왕(善德女王)의 어가가 행차하였다. 지귀(志鬼)가 불을 질러 탑을 태워 버렸으나 오직 새끼줄을 둘러 맨 곳만 화재를 면하였다.

또 신인종(神印宗) 조사(祖師) 명랑(明朗)이 금강사(金剛寺)를 새로 짓고 낙성연(落成演)을 베풀었다. 모든 고승들이 모였지만 오직 해공만이 오지 않았다. 때문에 명랑이 곧 항을 피우고 빌자 조금 있다가 해공이 왔다. 때마침 큰 비가 왔는데도 해공의 옷은 젖지 않았고 발에는 흙도 묻지 않았다. 해공이 명랑에게 말하였다. "은근히 부르기에 왔소." 그에게는 이러한 신령한 자취가 있었다. 임종할 때는 공중에 높이 뜬 채로 입적하였는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리가 나왔다. 일찍이 승조의 『조론』(肇論)을 보고 말하였다. "이것은 내가 옛날에 지은 것이다." 일연

해공, 어려서부터 영험함 보여

거리에서 노래 춤 즐기며 보살행

임종할때는 공중에 뜬채 입적

혜숙과 해공 계체 무너지지 않아

은 이 일을 근거로 해공이 승조법사(僧肇法師)의 후신(後身)인 것을 알겠다고 하였다. 일연은 해공의 보살행을 "술집에서 미친 듯 노래하고 우물에서 잠을 잤네"라며 기리고 있다. 또 해공을 혜숙과 함께 보배로운 '세속의 불 속에서도 타지 않은 보배로운 연꽃'[花中蓮]이라고 기렸다. 욕망의 불꽃조차도 그의 계체를 태울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자유 자재하였다는 말이다.

삶과 죽음에 자유롭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수행해야 하는가. 살아있는 존재는 모두 생유와 분유와 사유와 중유의 삶을 살아간다. 때문에 이 반복되는 삶의 수레바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를 지키고' [持戒] '율을 지키기' [持律] 위한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하다. 본능에 펼쳐지는 온갖 유혹과 갖은 계체에 흔들리지 않고 자유 자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체(戒體)에 대한 확고부동한 체화가 전제될 수밖에 없다. 삶의 매듭과 죽음의 매듭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절도 있는 삶을 살아야 할까. 이 조목에서 살펴본 것처럼 혜숙과 해공의 계체는 그 어떤 욕망의 불로도 무너뜨릴 수 없었다. 보살은 '계율'이라는 견고한 갑옷을 입고 '자비'라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채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다가가는 존재이다. 혜숙과 해공은 '세속으로 나아가기' [同塵]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날을 정진하였까. 동시에 우리는 세속에 나아가기 위해 얼마만큼 정진하고 있는가 되돌아 본다.

참고문헌

- 권삼로 역주,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 고영성, 『나는 오늘날 길을 간다, 원효 한국사상의 새벽』(한길사, 1997; 2002; 2009).
- 고영성, 『원효탐색』(연기사, 2002; 2010).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향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끈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할색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뚝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완저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위를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행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헌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